

예방책에도 교통 사망사고 증가

운창호 법 시행 등 대대적인 캠페인·단속 불구 올 6월까지 39명 사망... 전년 대비 4명 늘어나 가장 많은 '차 대 사람' 사고 중 70% '무단횡단'

올해 운창호법 시행에 따른 음주운전 단속 강화와 무인단속장비 확대 등 제주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활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사망사고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39명(제주시 26명·서귀포시 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명 늘었다. 올해 사망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차 대 사람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차 대 차 13

명, 차량 단독 7명이었다. 특히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차 대 사람' 가운데 73.6%(14명)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제주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면허취소 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정지는 0.05%에서 0.03%로 강화된 '제2운창호법'이 시행되자 이달 14일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자 124명을 적발했다. 지난달부터는 도내 27곳에 무인단속장비를 신규 설치해 운영을 시작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이러한 예방책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오는 10월부터 번영로·평화로·일주도로에서 시행되는 난폭·암체운전을 단속하기 위해 '암행순찰차'를 제주에서 처음으로 운영하기로 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과 화물차 과적·속도제한장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교통사고 취약지점 위험지도 제작·배포, 안전운전 문자메시지 발송 등도 진행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에서는 교통사고로 82명이 사망했으며, 사고유형은 차 대 사람 37명(45.1%), 차 대 차 26명(31.7%), 차량단독 19명(23.2%) 순이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무더위 속 시원한 만장굴 걸으며... 제주지역에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 위치한 만장굴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상국 수습기자

“밤에도 덥다”... 제주 올해 첫 열대야

외도 26.7℃... 무더위 계속

제주에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다.

24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3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제주시 최저기온이 25.7℃, 외도 26.7℃, 구좌 25.5℃, 한림 25.4℃를 기록,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다. 이 밖에도 서귀포 24.4℃, 성산 24.5℃, 고산 24.1℃를 기록해 열대야에 근접한 기온을 보였다. 열대야

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 이상 유지될 경우를 일컫는다.

올해 제주 첫 열대야는 지난해(7월 10일)보다 13일 늦게 나타난 것이다. 지난해 열대야는 41일로 평년 24.6일을 훨씬 웃돌았다.

24일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 30.6℃, 외도 30.9℃, 대흘 30.4℃, 오등 30.1℃, 구좌 30.9℃ 등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26일까지 제주 북부와

동부를 중심으로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한라산을 넘어 기온이 오르는 편 현상과 강한 일사에 의해 낮 최고기온이 31-32℃ 내외로 높게 오르겠다”며 “밤 사이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무더운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5일에는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산지와 서부 중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송은범기자

“만 3~4세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개설해야”

특수교육대상 부모 촉구

‘유치원 의무교육대상자 특수학급 설치’를 요구하는 엄마들’은 24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제주도만 특수교육대상자 만 3~4세가 취학할 병설유치원 특수학급이 없다며 개설을 촉구했다.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2019년 특수교육통계 중 ‘특수학급 시도별 과정 및 학년별 학생수’에 따르면 전국 시도 중 제주도만 공립유치원(병설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세가 없으며, 만 4세 또한 4명에 불과하다. 이들은



‘유치원 의무교육대상자 특수학급 설치’를 요구하는 엄마들’과 전교조제주지부가 24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병설유치원의 특수학급 개설을 촉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중 통합어린이집과 장애전담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이 갈 수밖에 없는데, 지난해와 올해 병설유치원 만 5세 일반학급이 늘어나면서 갈 곳이 더욱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은 내년에 수요가 많은 병설유치원 대신 병설유치원 중 일반학급 정원미달로 교실이

남게 된 곳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겠다고 한다”며 “집 가까이를 두고 멀리 있는 병설유치원 특수학급까지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어 “도교육청의 병설유치원 일반학급 증설 계획은 미필적 고의로 특수교육대상자 영유아들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표성준기자

“절대보전지역 당산봉 정비공사 중단하라”

당산봉공사반대위 촉구

당산봉공사반대대책위원회는 24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대보전지역인 당산봉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의 공사 중단과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당산봉공사반대대책위는 “단 한 번이라도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어도 이 어처구니없는 공사는 절대 불가

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산봉공사반대대책위는 “정비사업 구간에는 절대보전지역 40%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소규모 환경평가도 없이 진행됐고 이는 면제를 위한 쪼개기 공사 꼼수”라며 “그 많은 흙, 토사는 고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매각됐고 그 판매대금을 장비대 명목으로 만들어서 착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노래방 술 판매 업주 벌금형

제주지역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한 50대 여성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음약산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을 찾은 손님 7명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송은범기자

제주 렌터카 총량제 안갯 속으로

운행제한 집행정지 항고 기각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렌터카 총량제’ 시행이 안갯 속으로 빠졌다.

광주고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운행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제주도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3월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았으며, 이 권한을 이용해 올해 안에 3만 2000대 수준의 렌터카를 2만6000대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의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5월 8일 감차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들을 상대로 운행 제한을 공고했다. 또 같은달 29

일부러는 운행 제한 명령을 어기고 렌터카로 영업하다 적발되면 1년 적발될 때마다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반면 대기업 계열 렌터카 업체 5곳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5월 14일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과 ‘운행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잇따라 제주지법에 제기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이끌어 냈다. 제주도는 이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적법성 여부가 판단되기 전까지 렌터카 업체들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제주대 수시모집 비율 65.8%

제주대학교가 2020학년도 전체모집 정원의 65.8%를 수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제주대학교는 2020학년도 전체모집 정원 2371명(정원 내 2110명, 정원 외 261명) 중 65.8%인 1559명을 수시를 통해 선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정시모집 인원은 전체의 34.2%인 812명이다.

특히 제주대는 2020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일반학생, 기회균형선발, 평생학습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졸생, 특수교육대상자, 재직자·2)으로 총 606명을 선발한다.

자세한 지원 자격은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bsi.jejun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성준기자 sipyo@ihalla.com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안고 있는 일

- ▶ 키본·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 ONE-STOP SYSTEM
-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사무실 임대

위치 한라일보사 1층 (제주시 서사로 154)

전용면적 175㎡(분할가능)

용도 사무실용

주차장 완비

문의 064-750-2530